도교육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로봇 · 신재생에너지 · 3D 프린터 산업 ·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진로체험 진행 예정

전라북도교육청은 최근 지역 특화 산업 중심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 미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 추진한다.

작년에는 전북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9개 시·도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대학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45개 기관이 참여하여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278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2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올해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작년보다 79개 기관이 더해져 총 124개 기관이 지역별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탄소산업과 3D프린팅 산업을 중심으로 드론 제작 및 비행 시연 등의 다양한 강연 및 체험활동, 박람회 개최 등 총 31회 운영하여 전북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45교에서 2760여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등 지역내 대학교와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주교육지원청, 성진에어로 등이 참여하여 로봇, 신재생에너지, 3D 프린터 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진로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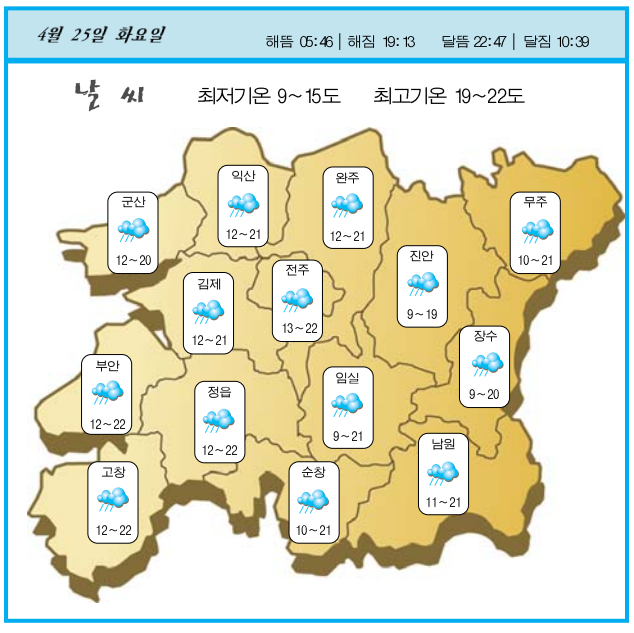
군산해경 명예홍보대사 2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홍보대사들이 3000t급 경비함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명예홍보대사는 최근 군산신문사가 주관한 '새만금 벚꽃야기씨 선발대회'에 입상한 8명이다.

이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의 초·중·고생으로서 농산어촌 소재 학교, 사회적 배려 학생을 우선 지원하게 되며 타 시·도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추진된다.

학교에서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이트인 '꿈길'을 통해 등록 신청하고 컨소시엄 기관에서는 매칭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교육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이 힘을 모아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마중물로써의 역할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전했다.

/정해은 기자



청소년 공학교사 아카데미 참여 교사 모집

전북대학교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에서는 공학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와 교육방법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 및 최신공학기술 확산을 통한 학생 간접교육을 위해 공학교사 아카데미 및 직무연수를 마련, 참여 교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호남·제주권역 과학교사들로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다.

전북대 청소년 창의기술인재센터 홈페이지(http://tstar.or.kr/tree/jbnu/)에서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스캔하여 E-mail(tstar@jb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미래사회 변화와 공학기술교육 및 융합신기술 특강 및 실습,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견학 등 전문교육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북대는 2011년부터 매년 공학 기술 개발에 동반되는 기술 경영 및 최신 공학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 주요 연구시설 및 기업을 탐방하는 주제로 공학교사아카데미를 개최, 권역내 과학, 기술 분야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최근의 교육패러다임이 반영된 메이커 체험 교육을 통해 교사진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융합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교사들의 적응력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기자

'느루동행학교' 89교 집중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집중지원학교인 '느루동행학교'를 선정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느루동행학교'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지난 21일 초등학교 72교, 중학교 17교 등 총 89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느루동행학교는 기초학력 더딤학생이 각자의 폭과 속도에 맞는 걸음으로 학습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배움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학교를 의미한다.

'느루'는 '한꺼번에 휘몰아치지 않고 길게 잡아서'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등을 고려해 1교(급)당 300만~600만원씩 총 2억7200만원을 지원,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학교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5년 연속 선정

학교 교육 연계 청소년 창의적 학습기회 제공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성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박물관은 지난 4년 동안 전북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의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 박물관은 지난 2013년 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전주 출판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옛 책, 우리 문화를 품다' 프로그램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기능을 체험케 하는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 등을 운영해 많은 청소년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 역시 도내 초·중·고교 50학급, 1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의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군자 병풍과 초상화 체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규 박물관장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특성과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 학교 교과가 연계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발맞춰 박물관에 학교 교육에 있어 새로운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원광대 백인철 · 전국홍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원광대학교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석사과정 백인철(전자융합공학과)씨가 검증한 자기력을 이용한 손가락 재활기기에 관한 기초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저널 마그네틱스(Journal of Magnetics)'에 주저자로 게재됐다.

또 다양한 방향에서 손가락 재활운동이 가능하도록 제안한 연구결과는 SCI(과학 기술논문 인용색인) 저널인 IEEE 트랜스액션스 마그네틱스(Transactions on Mangetics)에 오는 11월 게재가 확정됐으며 이 논문은 백인철씨가 제1저자, 전국홍(전자융합공학과)씨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이 두 가지 연구의 주제는 '자기력을 이용한 무선구동 방식 손가락 재활운동 기기'로써 기존 재활기기와 달리 복잡한 기계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력의 방향에 따라 손가락 운동 방향을 제어해 손가락의 굽힘, 펴짐, 비틀림 운동을 능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세계최초로 제안해 검증했다.

백인철·전국홍씨는 전자융합공학과 김성훈 교수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 자격으로 자기무선 엑추에이터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016년 한국재활복지공학회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에서는 장려상과 금상을 각각 수상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기자